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와 김우석 전내무장관이 구속되고 한나라당 오세웅 의원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상당수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회의 정치개혁 특위는 딱딱이라도 1백만원 이상은 모두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련의 상황 진행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정치인치고 뇌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조소가 일반적이고 보면 뇌물관행은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할 망국병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망국병은 정치논리에 의해 적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뇌물은 주고 받는 쪽 모두의 그릇된 재물욕과 부정직, 비윤리에서 비롯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뇌물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민의 피와 땀이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거래수단이 되어서는 그 나라의 운전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보자. <편지자 주>

### 이렇게 들었다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강당한 정책은 폐허 속에 묻혀 버린다. 그렇게 부정

### 뇌물 "국민복리 품치는 도둑 엄벌해야"

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품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늘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열치있게 사는 것과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위해 정백하여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게 살지 않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옛날의 어떤 왕이 뇌물을 받고 수행자들을 서로 싸우게 하였다. 그들은 결국 그 싸움이 부질없는 짓임을 알고 모두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모든 수행자들이 떠나버리자 성안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부덕을 성토하고 자리에서 쫓아내고 말았느니라. <지타카>  
차라리 도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자를 하며 부귀를 누리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뇌물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느니라.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삼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흠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할지니 이것이 여래선불 세존께서 세번재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능엄경>

3악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안(彼岸)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 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구차함이 있더라도 인색하지 말라. 열 때도 빈 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 손으로 간다. 3일의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요, 영원할 줄 알고 탐낸 모든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자문경>  
훌륭한 재물에 탐욕심을 내고 그 탐욕 때문에 더욱 미혹해져 미친 듯 날뛰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니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살생의 업이 쌓이는 줄을 마냥 모르는 것과 같구나. <집아함경>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독자의 소리

### 질은 화장 · 짧은 치마 사찰예절에 어긋나

분장강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짧은 치마나 야한 화장, 질은 향수를 바르고 질에 오는 불자들은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부처님이 항상 상황을 맞는 방법으로 우애한 우리 종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불자들의 화장법과 옷매무새도



**정진합니다**  
IMF 경제한파와 전국을 휩쓴 물난리로 떠나없이 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팔공산 깃바위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솟는 듯했다. 어른들의 간절한 모습과 어린이의 참진한 표정이 대비된다.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다득이고 따뜻한 눈길로 세상을 보고 싶다. 권기철(경북 안동시)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86 · 전신인 : aem · 하이텔 : 3473

### 주위의 불자들과 미소로 법문을 나누고 신심도 잘로 솟아나게 될 것이다.

### 불교TV 주식 동참 영상포교 힘 실어야

21일부터 불교TV가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50억이라는 액수 부채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동안 불교TV는 TV법회를 비롯해 경소 친견하기 힘들었던 신자식들의 법문을 담은 '말씀의 잣나무' 등 실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했다.

### 이렇게 영상 포교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불교TV의 주식공모에 전 불자들이 다시한번 발심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경숙 <서강대 방송아카데미 분장강사>  
불교TV가 영상의 영상 포교 매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김태연 <서울 개포동>

### 청정승가 지원법회 절마당서 쫓겨나다니

지난 5일 재가불자들은 또한번 스님들에게서 깊은 절마당감을 느꼈다. 도박사건을 계기로 스님네들

을 잘 모셔 청정승가를 구현하자는 참화와 서원의 뜻을 담은 '청정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를 열려고 했다. 그런데 조계종 총무원의 소임자 스님들이 법회장소로 예정했던 총무원 청사 앞 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무엇 하자는 것이냐"는 것이 이유였다. 차라리 잘못들은 말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강절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인가. 신문보도를 보니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10월 초에 '정화이념 계승과 승중쇄신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한다. 스님들의 대회는 권고하고 재가불자들의 법회는 왜 안된다는 것인가. 한 가정의 부모들도 자신들의 눈을 의식해 언행을 삼간다. 하물며 1천만 불자들의 스승인 승가임에 오죽하겠는가. 승가는 여전히 재가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주길 바란다. 유승구 <강원도 영월>

###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 "1천원 법보시운동 동참"

지난 9일자 현대불교신문에 'IMF 어려운 겪는 이웃에 따뜻한 법음을 전함시다'란 알림 기사를 보았다. 매월 1천원 이상의 동참으로 모인 금액으로 군부대 교도소 병인 복지시설 해외교민 시설 등에 신문물을 보낸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곳보다 절실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쉽지 않은 곳들이다. 현재 이런 곳에 1,258부의 신문을 보내고 있다. 전법은 포교와 다르다. 포교가 불자만들기, 즉 수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의 올바른 이치를 전하는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의 '1구와 1천원 법보시 운동'은 작은 금액으로 불법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신문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스리나 덜어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기뻐할까. 불국토는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 아닐까. 김경호 <서울 중계동>

### 독자의 편지에 답합니다

### 불상 軀로, 불감 座로 표기

대구에 사는 박유경불자께서 불상을 해아리는 수사(數詞)를 '시체를 해아리는 구(具)로 쓰지 말고 '좌(座)'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확인한 결과, 불상을 세는 수사는 '구(軀)', 불감은 '좌(座)'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세는 단위는 여러 구 문헌에 나타난 표기법을 따라 쓰고 있다는 황수영박사(전 동국대총장 · 문화재위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부석사 무량수전, 남대문 등 건물은 '동(棟)', 탑 부도 비석 석등 다리 당간 지주는 '기(基)', 경관은 '판(板)' 또는 '매(枚)', 종은 '구(口)', 벽화는 '면(面)', 향로 병은 '개(鬮)', 전직류는 '책(冊)' 또는 '축(軸)', 귀거래 요령은 '쌍(雙)', 금관은 '구(具)', 영정은 '폭(幅)', 해원종속도 등 그림은 '첩(帖)', 사리함 칼 거울 등은 '점(點)'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재해 원인은 인간의 탐진치

어느 날 문득 산이 재구실을 못한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계절을 바꾸어 오솔길 옆 수줍게 꽃망울을 터트린 꽃들이 자취를 감추고, 식물원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진짜 산은 국립공원이나 이름 난 큰 산 뿐이 남지 않을까. 괜한 공상이 아니다. 몇 해 전 환경원이 종교인선언이란 것이 발표됐다. 물질의 집착보다 정신적 풍요의 추구,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자연과의 조화, 후손의 삶을 생각하는 생활의 태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빛바랜 선언이 아니다. 울 여를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해지는 실천운 리이다. 선언 중에서 한 가지만 되새

### 사찰을 청소년 교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사회적 현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교계 일선 포교사들은 여전히 청소년 문제를 '결다리 끼기'로만 생각해 안타깝다. 청소년 탈선은 많은 부분 가족 간의 이해와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게 교육계 정설이다. 따라서 일탈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가족역할훈련'을 먼저 권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탈선에 당황하며 고민하는 부모와 그 사이에서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좁히는 지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명상 · 참선 · 화두 등의 수행법은 청소년의 도덕관, 창조력, 리더십을 개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익힌 것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도 포교사의 중요한 몫일 것이다. 물론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찰과 대중의 중간에 서있는 포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포교사들이 현대 교육의 방법론과 접근법을 과감히 포교의 장으로 흡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미경 <경교연 인천지부 사무국장>

## 금강경 金書공단명품보급

■ 작품  
· 전면: 금강경  
· 후면: 팔상록(金書)

■ 재질  
양면고급비단  
스기목/고급죽질  
10폭양면병풍

■ 보급가격  
₩550,000

■ 석가세존일대기 병풍(8폭)  
·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명 · 보급가: ₩450,000

■ 부모은중경병풍(10폭)  
·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명 · 보급가: ₩550,000

· 대를 물려도 뒤틀림이 없는 선보명품입니다.

**불국기획** 대표전화 (02)737-0048  
공장전화 (0351)877-3540

##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게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매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신의 운율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와 등잔이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 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잠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터지며 맑아들,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정장을 탁탁치면 대비가 각성되어 또렷 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없이 맺힌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몸과 마음의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연이, 병고여인의 괴로움이 번개처럼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갑작한 소외는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원소가락을 하나씩 해아리면 오른쪽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 또렷하고 정신 맑은 상태로 독경상태 이른다.
- 아무리 잘난 척 대단한 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열이나 손발, 배가 차가우며 배급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를 눌러보아 맞힌게 있고, 통증을 느끼면 몸통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만병의 원인을 간직한 부끄러운 예비환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 수행내용 : 한글공경경 불독, 석가모니불 염불정진, 참선, 좌선, 명선, 호흡 및 목 108배, 도인간강법, 축연기도 3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회비일체없음

아름다운 소리산 풍릿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공강산처럼 수련한 소리산 16만평의 명지에 위치한 청정현 수행전문도량임